

上(不明)殿下聖壽萬歲 尙宮己丑生 朴氏 和緩翁主 李氏 尙宮 戊子生 安氏

[左側面] 舍堂妙暹 崔弼煥 刻字 元梓佑 別座 (以下不明)

舍堂法眞 崔斗煥 石手 李億金(以下不明)

金壽錫 金俊奧 供養(以下不明) 重修山人(以下不明)

金龜錫 處士法倫 處士法惠 立牌山人(以下不明)

註

① 村松寬「美術館散步」二〇頁

② 無學浮屠의 建立은 李太祖六年 (一三九七 A. D.)六月이다。(太祖實錄 一一·一下)

③ 碑文은 駐日代表部大阪出張所의 配慮에 의하였다.

## 陝川 靈巖寺址와 그 遺物

朴 敬 源

一九五七年 여름에 陝川郡 佳會面 事務所에서 新羅統一期の 優秀한 雙獅子石燈 一基를 發見하였을 때 그 原所在地가 同面內 靈巖寺址임이 밝혀졌으나 그 곳까지의 거리가 八km가 넘고 또 交通이 極히 不便한 山中이므로 調査를 斷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뒤에 이 石燈은 國寶로 指定되는 同時에 이왕 元位置에서 遊離된 遺物이니 釜山에 移建하기로 되어서 慶尙南道當局에서는 筆者에게 石燈移建에 따른 實地調査를 依頼해 왔는 것이다.

때마침 三嘉(陝川郡)——居昌間의 新設道路가 本寺址 附近까지 開通하였으므로 一九五九年 一月二五일에 本寺址를 처음 訪問하고 極히 注目할만한 遺蹟임을 指摘한 바 있었던 것이다.

慶尙南道 當局의 移建計劃은 最後의 實踐段階에 들어가서 現地 住民들의 猛烈한 反對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던 次에 一九五九年 봄에

第二卷 第十號 通卷十五號

는 面民들이 本寺址에 庵子를 新築하고 王前記 石燈을 原位에 移建하였다는 消息을 듣고 同年八月二十九日에 再次 本寺址를 찾아서 寺址의 測量과 大略의 調査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때의 調査는 筆者가 海外旅行에 出發하는 數日前的 匆忙中 短時間에 寺址의 測量을 爲主하여 殘存遺物의 位置를 圖面上에 記錄하는

作業에 그치고 遺物 하나 하나의 細密한 調査까지는 손이 미치지 못하여서 그 結果의 發表를 保留하고 있는 中인데 黃壽永氏로부터 調査된 資料만이라도 一旦 紹介하라는 再三부탁에 우선 本寺址의 簡略한 輪廓만을 적어 보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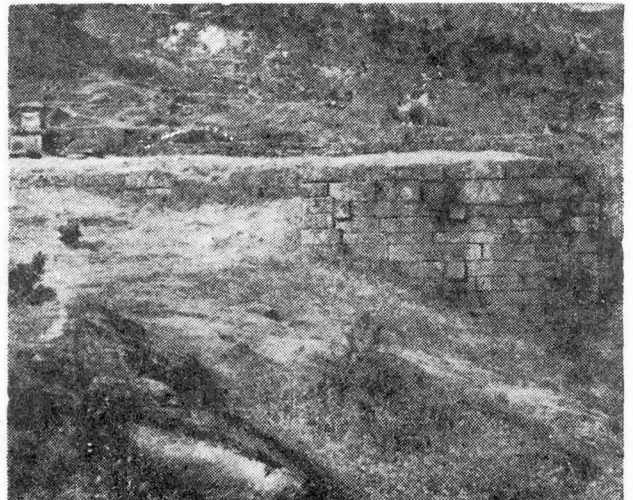
### 一、遺蹟(圖面參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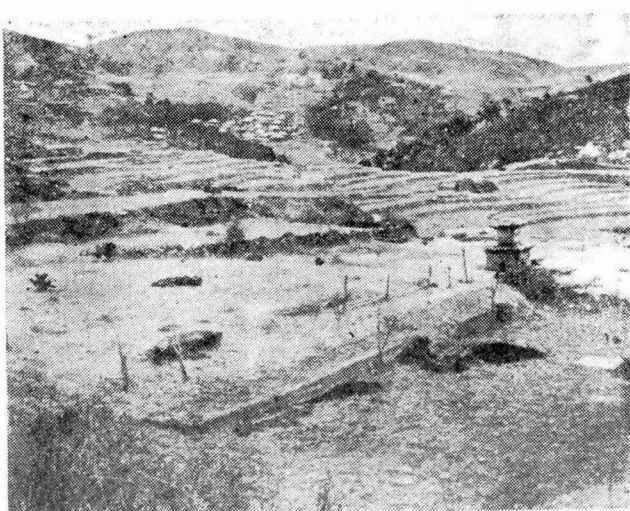
#### ① 建物址(前葉上段)

排水口石과 石製 楔石(後述)을 넣어서 쌓인 石築臺 위에 建物の 礎石 일부가 남아 있다. 처음에 여기를 山門址로 생각했었는데 아래로 遺物이 있는 는 두렇고 같은 石築으로 되어 있어서 山門은 좀더 前方에 있었으리라고 생각되므로 鐘閣 같은 建物이라도 있었던 곳인가 한다.

#### ② 建物址

法堂에 對하여 正面한 正向建物の 礎石 일부가 露出되어 있고 埋沒된





것도 있을 듯하다.

◎ 建物址

새로 庵子가 들어선 자리인데 比較的 整然하던 礎石 등이 많이 移動되었다.

① 法堂址(前葉下段)

法堂은 一邊 五二尺의 築臺上에 方二四尺의 建物이 들어섰던 모양인데 四角形의 礎石上面에는 直徑 一·四尺의 柱形을 彫出하여 柱間 六—六·五尺의 間隔을 보여 주며 建物

法堂의 北方約 三〇m 떨어진 一域은 現在 논이 되어 있으나 石築이 있고 出入門이 있던 곳에는 石階段과 石製門楣 등이 殘有하고 있다.

二、遺物(遺物名위의 數字가 圖面에 記入되었음)

(1) 石築臺

① 建物址의 石築臺는 長方形의 石材를 亞字式으로 싸고 그 中間 中間에 形의 보축돌(楔石)을 넣어서 조금도 허무러진 흔적이 없다. 寫眞(6)에서 方形의 突出된 石頭는 이 楔石의 頭部이며 排水口石(寫眞2)도 곳곳에 配置되어 이 時代 石造建築의 좋은 標本이 되리라 고 생각한다.

(2) 三層石塔

一邊 八·二尺의 下成基壇은 거의 埋沒되었으나 下成基壇과 初層塔身部까지는 完全하고 二、三層의 各部分도 附近에 散在하므로 復原이 可能하다.

新羅式 一般型의 三層塔으로 一·二尺 內外가 될 것이다.

(3) 石燈下臺石

石塔에서 東南向으로 一·二尺의 地點에 直徑 二·九尺의 俯蓮下臺石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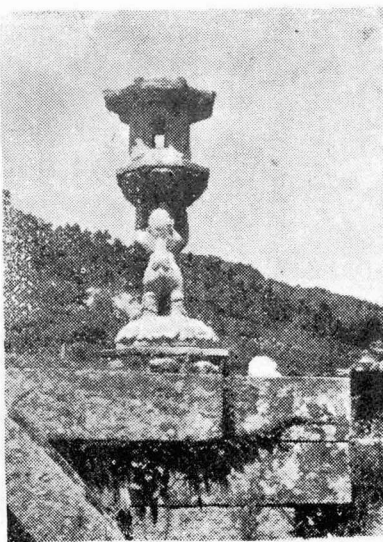
(4) 雙獅子石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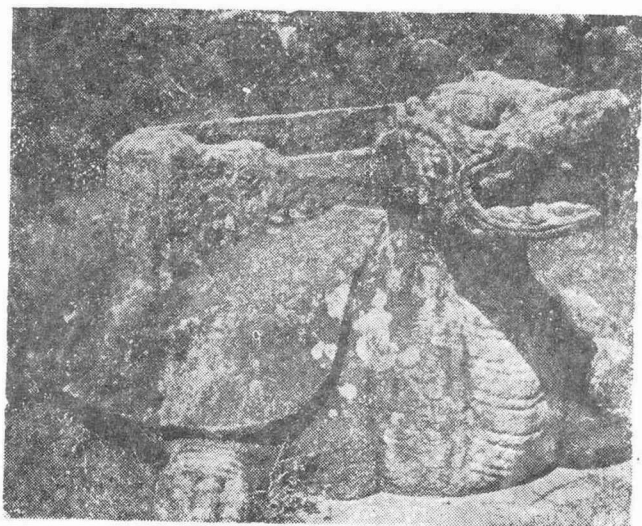
四隅에는 春椽添柱의 礎石(自然石에 圓形彫出)이 있으며 柱礎에서 四尺나간 落水線에는 落水의 受石이 一列로 排列 있다. 築臺의 各邊은 眼象을 새긴 板石(高約 二尺 長約 六尺) 六—七片으로 서 짜여졌는데 各邊의 兩端에서 들쭉 板石의 眼象內에는 一驅의 動物形이 희미하게 陽刻되어 있다.

② 佛堂址

法堂址에서 西南으로 約 六〇m의 거리에 三間(三四·五尺) 二至(二四尺)의 建物 礎石과 正面 兩側에 階段이 完全하고 佛壇의 基壇으로 稱되는 것이(後述) 中央에 位置한 建物址가 있다.

③ 建物址





(後葉上段右)

本石燈은 이미 여러 곳에서紹介되었거니와 現在の位置가 正確한 原位置임에 틀림없는 듯하다.

全한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다. 基臺石은 一邊一·三尺一·四尺高一·三尺의 八角形인데 各側面에는 十二支獸인 듯한 動物一軀씩을 두텁게 陽刻하였다. 이 基臺石도 石燈과 같이 三十餘年前에 日人들이 搬出하다가 附近에 버려두었던 것이다.

○ 圓形臺石

石燈의 基壇附近 土中에서 側面에 唐草文이 陽刻된 圓形의 石材二片이 發見되었다. 直徑 四·五尺 高一·三尺으로 復原할 수 있는 圓板石中의 二片인데 用途는 아직 未詳하다.

○ 石階段(後葉上段左)

石燈이 있는 石築臺의 左右에 있는 石階段은 幅三尺 單一石으로 되었고 이 附近에 欄竿石같은 石材의 破片들이 있다.

(5) 臺石

法堂의 南側面의 中央에 石階段이 있고 거기서 二尺의 거리에 方三尺 高二·八尺 側面에 眼象이 새겨진 臺石一基가 있다.

(6) 石造坐像

法堂附近 路畔에 頭部手足이 缺失되어 破損이 甚한 坐像(高二·五尺)이 있다.

(7) 佛壇基壇石

佛壇址의 中央部에 方六尺의 넓이로 形으로 짜여진 四片의 石材가 地上에 露出되어 있는데 佛像臺座의 基壇인 듯하다.

(8)(9) 左右龜趺(後葉下段)、(寫眞左龜)

前記 基壇石의 兩端에서 左右로 三〇尺의 거리에 龜趺一基씩이 있는데 佛堂을 向하여 左龜趺는 形體도 若干 크고 姿態에도 雄偉한 氣象을 表現하였으며 右龜趺는 反對로 優雅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住民들은 雌雄一雙을 表現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碑身과 螭首에 對하여는 아직 아무런 情報가 없다.

左·右龜趺 比較表

左龜趺 右龜趺

全長 八·四尺 七·二尺

身幅 六·四尺 五·六尺

頭高 四·〇尺 三·五尺

碑石幅 三·三尺 三·二尺 (碑座에 依)

碑石厚 五·八寸 四·七寸 (하여 推定)

龜甲 複線龜甲文 同上, 植物形裝飾文 陽刻

(10) 石燈臺石

佛堂 前面 礎石에서 三四尺의 거리에 또 하나의 石燈臺石이 있다.

基壇石의 有無는 土中에 埋沒되어 未詳이나 이 臺石은 高一·六尺의 方形單一石을 二段으로 짜은 것인데 下段은 方四·九尺 高九寸이고 上段은 方三·七尺 高六寸인데 天面에 一邊一·三尺 高〇·五寸의 八角形이 彫出되어 八角의 下臺座를 받도록 되어 있다.

처음에 雙獅子石燈의 基臺石을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것을 그 臺石으로

로 速斷하고 石燈에 比하여 臺座가 貧弱한데 對하여 적지 않은 疑心을 시켰던 것이다.

(11) 石燈屋蓋石

二次踏査時에 (10)臺石이 있는 附近 田畔 들담에 混在한 石燈屋蓋石 一個를 發見하였는데 直徑二·四尺 八角의 一邊一·一尺의 크기였다.

本寺에는 獅子石燈以外에 적어도 二基以上の 石燈이 있었을 것이므로 그 어느 것에 屬할 것인지 未詳이다.

(12) 石造門楣石

佛堂의 出入門으로 짐작되는데 지금 數段의 階段이 埋沒되어 있고 高七·九尺의 石造門楣石이 남아 있다.

(13) 石槽 및 홈돌

石槽는 長七·九尺 幅四·一尺으로 完全하고 홈돌은 幅一·六五尺, 長三·八尺의 單一石을 斷面凹形으로 彫出한 것인데 現在 一個가 露出 되어 있으나 引水路의 土中에는 埋沒된 것도 있다고 한다.

(14) 八角柱石

田畔에 放置되어 있는데 直徑二·〇尺 高一 一尺의 八角柱로 中央의 구멍은 二·五寸×三 五寸 깊이 三寸 用途未詳

○ 大石槽

本址寺에서 南向으로 三〇〇m 가량 떨어진 溪川가에 있는데 原位置에서 移動된 듯 하다. 長八·六尺 幅五尺 短側面 한쪽이 떨어져 있다.

(15) 民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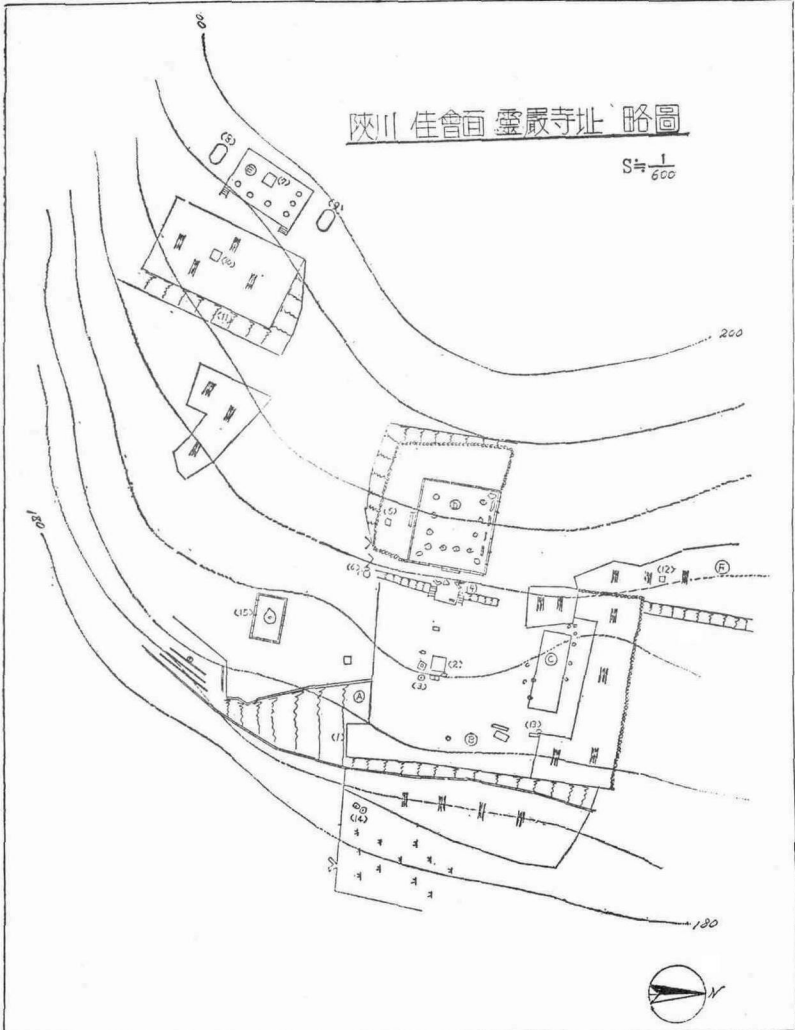
近年에 民墓인데 石物 等에 寺址의 遺物도 混入된 듯 하나 充分한 檢討를 하지 못하였다.

石獅子

石燈移建時 土中에서 發掘된 것인데 彫刻은 그 리아름답지 못하다. 頭上部의 構造로 봐서 頭部로서 石床같은 것을 받들고 있던 것인 듯 하 다. 이와같은 猫形(獅子라기보다 猫形에 가깝다) 石物이 近年까지 數基있었다고 한다.

△附 記▽

靈巖寺에 對하여는 輿地勝覽 三嘉郡邑誌 等에 一切所見이 없고 國立博物館所藏 襄陽沙林寺 弘覺禪師碑(新羅 憲康王十二年 丙午)에 「……往 海印寺訪□□□求其勝者忝聞……年復於靈巖寺修



陝川 佳會面 靈巖寺址 略圖

定累月……」

寺名 三字만이 唯一한 것인데 이것이 陝川 靈巖寺라고 斷定한 根據도 없으나 現在 本寺址의 遺物들과는 年代的으로 符合되는 點이 있으므로 여기 附記하여 同人諸位의 敎示를 기다리기로 한다. (二〇月一日)

### 鐵佛頭 二例

鄭 永 鎬

佛像研究에 있어서 頭相은 衣褶과 더불어 가장 注目되는 바이다. 더욱이 前者에는 時代의 樣式의 特徵과 精神의 內容이 具現되며 造像의 工匠도 한이 곳에 注力하는 까닭이다. 筆者는 最近 서울市內에서 鐵造佛頭 二例를 調査한 바 있어 비록 佛身과 分離되어 關係知見을 喪失한 遺品이나마 年代의 高古함과 巨像의 것으로 推定됨에서 簡單히 紹介한다.

〔其一〕 서울 仁寺洞 博古堂 所藏 (寫眞上)……今年四月京畿道 富平에서 入手되었다는 데 日人의 舊藏이라고 한다. 螺髮로서 肉髻는 둥글고 그 밑에 半月形의 突起가 보이며 耳端은 缺失되었으나 原來 구멍이 마련되었던 듯하다. 相好는 둥근 편이나 豐滿하지 못하고 眉間에는 白毫孔이 있으며 弧形의 兩肩에 이어진 鼻部는 크고 오뎅하며 눈은 가늘



고 口脣은 작은데 微笑를 띄었다. 螺髮에는 綠과 紅相好에는 綠과 白의 彩色片이 남아 있다. 高三六·五 cm 幅二七 cm

第二卷 第十號 通卷十五號

고 口脣은 작은데

微笑를 띄었다. 螺髮에는 綠과 紅相好에는 綠과 白의 彩色片이 남아 있다. 高三六·五 cm 幅二七 cm

〔其二〕 서울 壽

松洞 九霞山房 所藏

(寫眞下)……發見 및

入手經緯는 未詳이다. 라는 바 高四〇 cm로서 前者보다 더욱 크다. 螺髮인데 肉髻의 區別은 거의 없다. 넓은 이마에는 白毫孔이 있으며 弧形의 兩肩을 따라 그 위에 細線一條을 刻하였다. 鼻樑은 低平한 편이며 口脣은 磨損되었으며 兩耳는 輪廓은 耳朶를 缺하였다. 눈을 가늘게 펴서 그 긴 꼬리는 위로 올라갔다. 頸部에는 三道가 보이는데 全面에 彩色는 아니 보이며 赤鏽가 덮여 있을 뿐이다. 顔容은 豐滿한 편이나 各部의 彫法이 多少形式에 흐르고 있음은 時代의 降下를 보이는 하나 巨像의 것으로서 保存도 良好하다.

以上 兩品은 新羅下代로부터 流行한 鐵佛 造成에 따르는 遺物로서 羅末麗初頃으로 推定되는 바 貴重한 資料로서 國內에 保存되어야 할 것이다.

實測值 (cm)

頭周 額幅 兩頰幅 眼長 口脣幅 耳長

〔其一〕 八五·五 一九一七 七·五 五·五 一六·八  
〔其二〕 一一二·五 二九二五 一〇六 二〇

